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 환경부, 서울시, 엘지에너지솔루션 등 8개 기관 11월 7일 업무협약
-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하고 국가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구축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

**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하여 별도 충전 없이 사용 가능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24.9월기준) 약 42.6만대 중에 전기이륜차는 약 1.6만대(3.7%)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추진배경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의 협력 강화 필요

2. 업무협약식 개요

- (협약명)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時/所) '24.11.7(목) 09:50 ~ 10:20 / 서울시청 본청 3층(대회의실)
- (협약기관) 8개 기관(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LG에너지솔루션, 소상공인연합회,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 (협약내용)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구매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구축 지원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업계 노력, 전기이륜차 홍보 확대 등

3.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분	• 사전환담 및 이동(6층→3층)	6층 시장실
10:00 ~ 10:11	11분	• 개회사 및 축사	3층 대회의실
10:11 ~ 10:14	3분	• 사업 설명 - 전기이륜차 시승, 배터리교체 시현 등	
10:14 ~ 10:20	6분	• 업무협약, 기념촬영, 폐회	